조선

2025 9

(832)

1956년 4월

화보《조선》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10 ‖ 조국해방 80돐을 경축하는 예술공연 성황리에 진행

1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2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2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전화대화를 하시였다

2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28 ‖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의 경축공연 진행

3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귀국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주요지휘관들을 만나시였다

34 ‖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 장한 아들들에게 드리는 가장 값높은 영광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42 ‖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4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5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과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5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군인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특　집

58 ‖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시여

소　식

66 ‖ 조국해방 80돐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오늘의 조선

72 ‖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자　연

74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금강산

표지: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조국해방 8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편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룡

2

34

46

66

74

특별소식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전면적국가부흥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치며 자주, 자립, 자위의 한길로 힘차게 용진하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해방 80돐을 혁명적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가 8월 14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도착하시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뜻깊은 8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학생소년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축대회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의 유자녀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비롯한 시안의 일군, 근로자, 청년학생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과 문화성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경축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는 장장 한세기에 이른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사의 고귀한 첫 승리이며 반만년력사의 획기적사변인 조국해방 80돐을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망국민의 수치와 불행을 강요당하던 인민을 항일구국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국권수복의 세기적대업을 달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불멸할 영광과 최고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40여년간에 걸친 투쟁은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나라와 인민은 망국의 굴욕을 피할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자신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에 의해서만 잃었던 존엄도 되찾고 지켜갈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 혁명군과 어깨겯고 싸운 쏘련군 장병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무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한 싸움에서 피로써 맺어진 단결과 우의가 제국주의의 횡포한 전횡과 침략책동을 짓부시는 21세기 전장에서 높이 발휘되고 위력한 동맹관계로 승화발전되고있는것은 조로친선의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신생과 발전의 성스러운 행로를 높이 떠올리는 경축의 오늘은 인민의 운명전환을 안아온 불멸할 정신과 수십성상의 간고한 항쟁사와 함께 장장 80년을 이어온 새 조선의 력사가 어떻게 존엄과 영예의 절정에 자리매김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시대의 조명이자 긍지높은 총화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자주적존엄을 되찾은 조국해방위업의 혁명적성격과 정치적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어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성대한 경축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하면서 조선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보내여온 축하편지를 대독하였다.

그는 로조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들을 철저히 리행하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의 앞길에 번영과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신생과 발전의 성스러운 행로를 높이 떠올리는 경축의 오늘은 인민의 운명전환을 안아온 불멸할 정신과 수십성상의 간고한 항쟁사와 함께 장장 80년을 이어온 새 조선의 력사가 어떻게 존엄과 영예의 절정에 자리매김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시대의 조명이자 긍지높은 총화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자주적 존엄을 되찾은 조국해방위업의 혁명적성격과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조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진 생을 가장 값있고 행복한 생으로 간주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위대한 인민에 대한 더없는 경의심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처럼 정의롭고 강인하며 자존심이 센 인민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며 그렇듯 애국적이고 그렇듯 자존심이 강한 인민이 건설하고 떠받드는 국가는 영원히 강대하고 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의 위대한 력사는 천년만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강국을 위하여, 후손만대 길이 빛날 사랑하는 우리 국가의 무궁한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계속 굳함없이 우리 앞의 도전들을 이겨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받들며 자기 시대, 자기 세대의 력사적사명과 의무에 무한히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가 열광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축대회는 《인터나쇼날》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국해방 80돐을 경축하는 예술공연 성황리에 진행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시원이 열리고 자주강국의 도도한 80년이 뿌리내린 뜻깊은 명절을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조국해방 80돐 경축공연이 8월 14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의 유자녀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공로자들, 인민군장병들, 혁명학원 원아들,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 문화성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경축공연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항공륙전병들의 집체강하기교가 있었다.

고도 4 500m 상공에서 자유락하한 항공륙전병들이 조종락하산을 펼치고 난도높은 강하기교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어머니조국의 영광찬 력사에 드리는 눈부신 꽃송이들인양 밤하늘을 누비였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시련과 도전을 강용히 딛고 넘으며 강국의 령봉에로 용진해온 긍지높은 세월을 그려주며 항공륙전병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이 거폭으로 다가들자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드리는 참가자들의 경의가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분출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전인민적인 수령송가들과 혁명가요들,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숭엄한 회억이 흐르는 무대에 조선혁명사의 첫페지에 아로새겨진 항일선렬들의 영웅적군상을 그려주는 혁명가요들과 항일전의 노래들이 울려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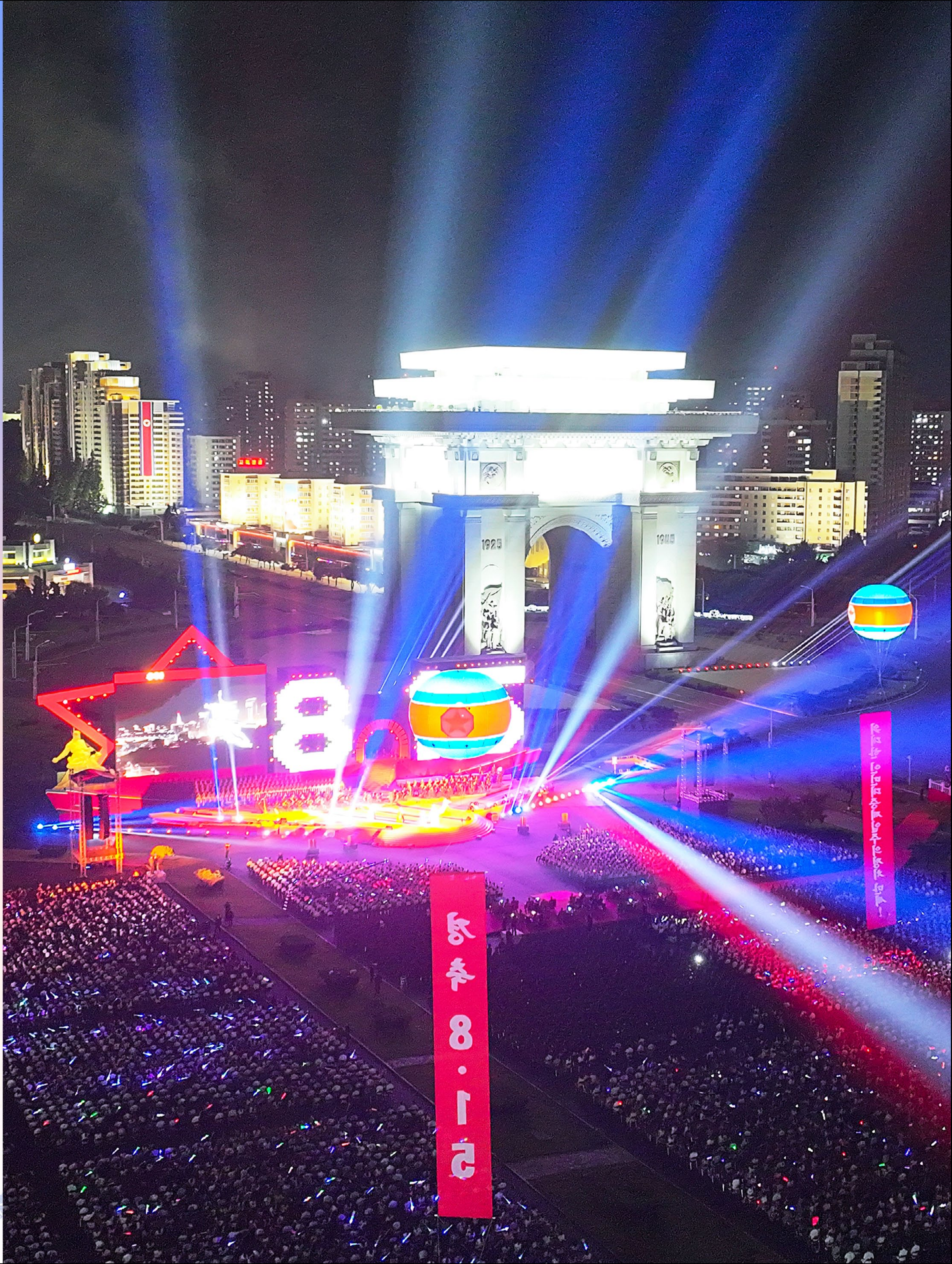
력사의 8.15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아득히 멀어져도 혁명선렬들의 필생의 념원대로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80년세월 굴함없이 키워왔고 세계앞에 당당히 떨쳐온 강대한 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절대의 존엄과 영광만을 더해주려는 강렬한 지향이 끓어넘치는 명곡들에 관람자들은 열정적인 호응의 박수를 보내였다.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로씨야노래련곡이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행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싸우고있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용감성과 완강성, 열렬한 애국심과 락천성을 반영한 련곡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부흥강대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공동위업실현의 길에서 더욱 깊어지고있는 친선단결의 정으로 충만된 공연은 로씨야련방 국가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축포탄들이 밤하늘을 눈부시게 장식하며 부서져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8월 1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위원회, 성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20성상 고난과 시련에 찬 혈로를 헤치시며 나라를 찾아주시고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가장 강대하고 존엄높은 천하제일의 강국, 인민의 리상향으로 빛내여가실 엄숙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거창한 변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력사적위업 실현에 일심매진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8월 1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박태성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위원회, 성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해방과 자주권수호, 인민의 자유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투철한 정신과 열혈의 애국심을 지니고 항일대전에 용약 떨쳐나 피로써 독립을 성취한 혁명의 1세들의 불멸할 공적과 값높은 삶을 경건히 회억하시며 오진우동지, 오백룡동지, 김일동지, 최춘국동지, 강건동지,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 림춘추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대로 시작된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귀중한 첫 전취물인 조국해방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자주독립사상과 20성상의 거룩한 령도실천의 승리이며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결사항전한 우리 혁명의 개척세대의 영웅적투쟁의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고의 항일전쟁사가 더없이 성스러운 것은 걸음걸음이 혈전혈투였던 그 갈피마다에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적동지애의 세계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백절불굴의 투쟁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만대에 이어나갈 위대한 백두산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투사들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가 후세토록 기억하고 따라배워야 할 진정한 혁명가, 참된 애국자의 귀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1세들이 다져준 승리와 영광의 만년토대우에서 우리 국가는 세계제일의 강국으로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투사들의 고결한 넋과 정신이 영생불멸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였다.

강대한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절대적힘이시고 위대한 존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국방성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이 동행하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쏘련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해방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조국해방사에는 공동의 원쑤를 격멸하는 항일혁명전쟁에서 쏘련군장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불멸의 위훈이 새겨져있다고 하시면서 간고처절한 전화속에서 맺어진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와 혈연의 뉴대는 국제적정의와 련대성의 참다운 본보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나라 선렬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세기를 이어 다져진 불패의 조로친선은 앞으로 더욱 굳건히 강화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특별소식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전화대화를 하시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의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8월 12일 전화대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울라지미르 뿌찐동지는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고 따뜻한 동지적분위기속에서 대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가 조국해방 80돐을 맞이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전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80돐을 맞게 되는 우리 전체 인민은 80년전 붉은군대 장병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에 대해 진정한 국제주의의 참된 귀감으로 경건히 추억하며 조선의 해방을 위해 희생된 쏘련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의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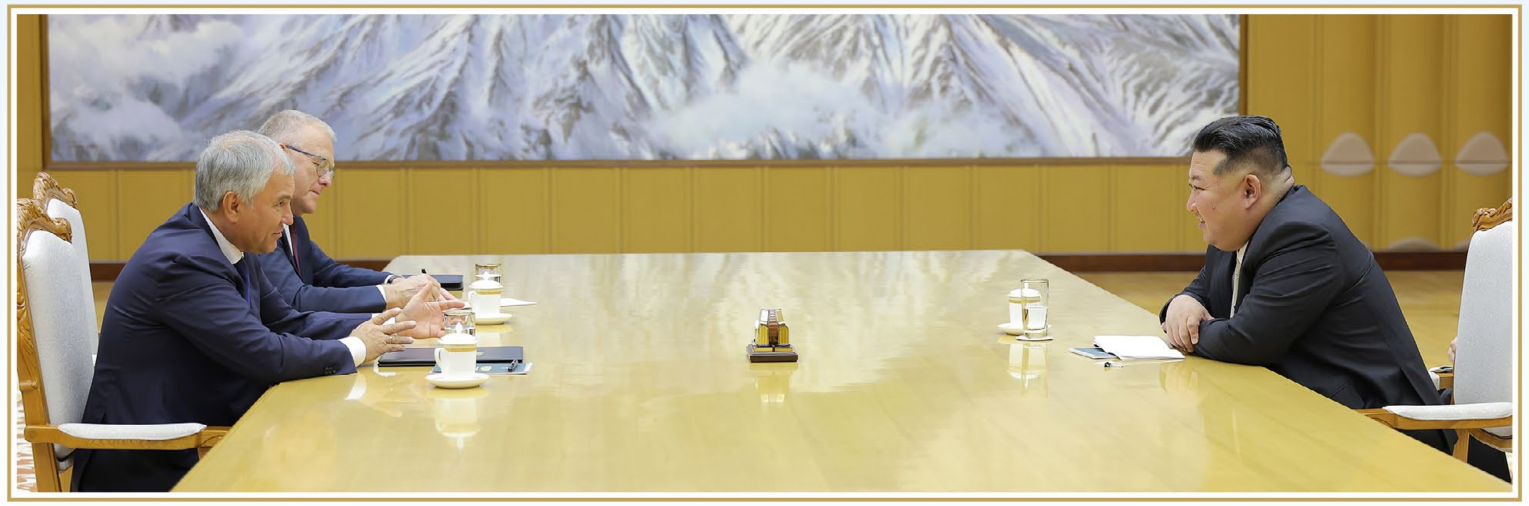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동지는 꾸르스크령토를 해방하는 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공한 지원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영웅주의, 희생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와 군인들에 대한 뿌찐동지의 높은 평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로간조약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며 앞으로도 로씨야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굳게 확언하시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김정은동지와 뿌찐동지는 앞으로의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4일 오후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친근한 인사와 축하편지를 월로진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동지가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월로진동지와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이번 방문은 조국해방 80돐의 의의를 더해주고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조로관계발전을 보다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밀감과 형제적감정을 더욱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틀전 뿌찐동지와 전화대화를 진행하고 조로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국가지도부간 접촉과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량국간의 정치적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쌍무관계발전에 유리한 정치적, 립법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두 나라 의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새 국가간조약과 합의들이 각 분야에서 원만히 리행될수 있도록 두 나라 의회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월로진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꾸르스크해방작전에 우수한 군인들을 파견하고 로씨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조치들을 취해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면서 로씨야는 가장 중대한 시기에 결정적인 지원을 준 조선인민과 정부, 로씨야에 와서 목숨바쳐 싸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로씨야인민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면서 월로진동지와 전체 로씨야국가회의 대의원들이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립법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시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의 경축공연 진행

위대하고 부흥강대한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려정에서 단결과 우의의 새 전기를 펼쳐가는 조로 두 나라 인민은 조선의 자주독립이 성취된 8월 15일을 공동의 경사, 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였다.

불패의 조로친선의 년대기우에 또 하나의 페지를 아로새기며 력사적인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예술사절들의 경축공연이 8월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의 벗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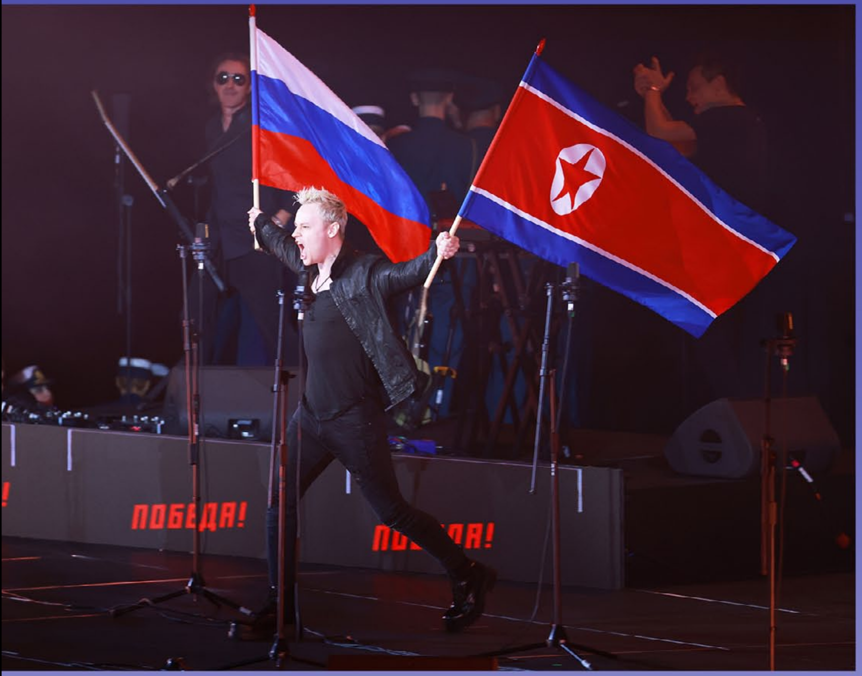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뱌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문화상, 외무성과 문화성의 일군들, 각급 예술단체들의 예술인, 창작가들, 예술교육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보았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과 문화성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공연에는 로씨야의 관록있는 예술인들과 국방성소속 전략로케트군 《붉은별》협주단, 항공륙전군협주단이 출연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완강성,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락천적인 사상감정으로 충만된 위대한 조국전쟁주제의 노래련곡과 로씨야련방무력의 군가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곡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고유한 전통문화와 풍습, 유구한 력사를 민족적정서가 짙은 로씨야명곡들에 담아 무대우에 펼치였다.

로씨야의 인기가수 샤만이 부른 《나의 로씨야》, 《일어서리》 등 애국주의주제의 노래들은 풍부한 예술적기량과 기백넘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해방절의 환희를 더해주고 날로 개화만발하는 조로친선에 특색있는 기여를 한 로씨야예술인들의 평양방문공연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한 로씨야예술인들의 평양방문공연은 조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귀국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주요지휘관들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귀국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주요지휘관들을 만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우리 무력 전투부대들의 해외작전지역에서의 군사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로씨야련방 꾸르스크주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부대들을 승리에로 지휘한 그들의 로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은 가장 중대한 임무수행에 동무들과 동무들의 전투부대들을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믿음에 제일 충직한 전설적군공으로써 보답한 꾸르스크해방작전부대 전체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에게 열렬한 전투적격려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석상에서 우리 군대의 영웅성을 치하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는 영웅군대이다. 그것은 우리 군대가 영웅인민이 낳아 키운 아들들이기때문이다. 우리 군대는 자기의 특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한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서의 직함과 명성을 고착시켰고 모두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 우리 군대는 지금 할 일을 하고있으며 필요한 일을 하고있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 장한 아들들에게 드리는 가장 값높은 영광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더없는 자랑이고 전체 인민이 기다리는 장한 아들들, 나라의 영웅들을 이처럼 의의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공화국영웅칭호와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하게 된 감개를 피력하시면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역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조선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조국에 떳떳이 돌아온 해외작전부대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국가고유의 승리전통을 새 세기에로 굳건히 이어놓은 위대한 계승자, 대표자들을 금별의 영예속에 가장 뜨거이 품어주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열화의 숙원과 정깊은 부름에 따라 수만리길을 달려와 당중앙뜨락에 들어서는 참전용사들을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열렬히 맞이하였다.

국가표창수여식장에는 조국의 명령앞에 무한히 충직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의심이 숭엄히 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였다.

수여식에는 해외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지휘관, 전투원들과 렬사들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방성 주요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더없는 자랑이고 전체 인민이 기다리는 장한 아들들, 나라의 영웅들을 이처럼 의의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공화국영웅칭호와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하게 된 감개를 피력하시면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역의 포연탄우속에서도 《조선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조국에 떳떳이 돌아온 해외작전부대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높이 내세우고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높은 표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이렇게 첫 수훈식을 가지고보니 이 시각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 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렬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하여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여 묵상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전체 참가자들은 불굴의 전투정신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값비싼 승리를 안아온 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운 해외작전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여서는 안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며 우리의 건군사와 반제혁명투쟁사에 기적으로 기록될 승리인 동시에 수천년을 내려온 강자의 론리를 재정립한 세계전쟁사의 사변으로 된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전장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을 대표한 해외작전부대들의 전투활동은 사상정신과 주체적전략전술의 확실한 우세로써 백승을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립증하였다고, 당중앙이 제일로 중시하고 만족스럽게 평가하는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력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수훈식은 조국의 운명과 장래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내린 정치적결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수십년을 쌓아 지켜온 위대한 명예를 사수한 력사적장거에 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감사의 표시이며 값높은 평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포탄이 작렬하던 작전지역에서 발휘한 우리 장병들의 뛰여난 영용성과 고결한 희생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들은 마땅히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해외작전부대는 영웅부대라고 칭해야 할것이라고, 해외군사작전의 승리적종결이라는 사변의 근본비결은 특출한 몇몇 군사가나 영웅들의 공훈에 있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영웅주의의 대중적성격에 있으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가 전체 장병들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지배된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작전참전자들은 군인의 본령인 명령집행에서의 철저성도, 조국애와 전우애의 열도와 헌신성도 하나같았고 생의 최후와 직면한 시각에조차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에 떳떳한 선택을 할줄 아는 도덕성도 하나같이 훌륭하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이같이 비범한 정신적 특질로써 우리 군대가 과연 무엇으로 강하고 어떤 싸움에서든 반드시 이기게 되여있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 알게 하였으며 이는 강군의 개념과 승전의 법칙을 시대와 력사우에 뚜렷이 새겨놓은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런 군대를 자기 혁명위업의 개척자로, 수호자로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영웅군대가 지켜선 나라는 영원히 강대하고 영웅군대를 전위에 세우고 전진하는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참전자들의 공훈을 길이 전해가기 위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행하게 될 중대조치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참전용사들이 피흘리며 개척한 영광의 로정과 렬사들의 고결한 생은 끝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피의 전투기록들은 조국청사의 가장 고귀한 페지들로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는 동무들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로 하여 영원히 존엄높고 위력하고 강할것이며 우리 군대는 그 특유한 충실성과 영웅적기개로써 위대한 전승사의 흐름을 천년만년 이어갈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장구한 승리사와 혁명무력의 절대적인 위세우에 가장 높고 빛나는 절정을 세운 해외작전부대의 영웅장병들에게 불멸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진정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만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해외군사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훈장, 메달을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해외작전지역에서 공화국무력 전투구분대들을 승리에로 지휘한 능숙한 군사지휘관들과 특출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명령을 가장 철저한 집행정신으로 받들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뜨겁게 덥히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참전렬사들의 고귀한 모습들과 빛나는 최후를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렬사들의 초상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메달을 직접 달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생을 바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위와 명예의 찬연함을 지켜낸 참전렬사들의 고귀한 삶이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한 위훈의 별로 무궁토록 빛나기를 기원하시며 추모의 벽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 렬사들의 유가족들이 추모의 벽에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렬사들의 유가족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상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위로해주시였다.

수여식에서는 해외작전부대 전체 장병들을 대표하여 특수작전부대 사령관 조선인민군 륙군상장 김영복동지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국기를 가슴에 품고 가렬한 전투 포화속을 뚫고 헤치며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조국의 믿음을 지켜주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높이 떨친 해외작전부대 전체 장병들과 후세토록 전해가야 할 위훈과 전기를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의 필승의 포석으로 고인 영웅렬사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특별소식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강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축하하는 공연이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장소에 도착하시여 중앙홀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꺼질줄 모르는 별들로 영생하는 참전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에서 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친 참전용사들의 애국적장거는 후세토록 전해질것이라고 하시면서 해외군사작전에서 부대들을 승리에로 능숙하게 지휘한 주요지휘관들과 력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참전렬사들의 유가족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한 령군술,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압승하는 세계최강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고 시대의 단상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공연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참전용사들이 꿈결에도 잊은적 없던 어머니조국에 대한 노래, 필승의 혁명군가들을 열창하며 전설적인 무훈으로 우리 국가의 명성을 떠올리고 우리 군대의 불굴의 영웅적기질과 전투정신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김정은**시대의 전투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강대함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을 아낌없이 바친 영웅들의 충성과 애국의

넋이 뜨겁게 고동치는 곡목들은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인민군의 혁혁한 전과는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인 위대한 사상전의 전취물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참전용사들을 추억하는 노래 《조국의 별들》, 《기억하리》, 《오직 승리》가 울려퍼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름앞에 한몸을 초개와 같이 내대며 이 세상 어느 군대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정신으로 원쑤들을 전률시킨 용사들의 불굴의 모습을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아보았다.

우리 혁명무력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과시하고있는 강군건설의 새시대에 창군세대와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보다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켜 후손만대 긍지높은 영웅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넘쳐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참전군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뜨겁게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6일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당의 부름을 전투명령으로 받아안고 총분기해나선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착공한 때로부터 불과 190여일만에 양식사업소의 현대적이며 선진적인 생산시설들과 소층, 단층의 각이한 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들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어촌이 《락원포》의 뜻깊은 이름과 더불어 황홀한 선경을 펼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락원포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모래불만이던 이곳에서 착공의 첫삽을 뜨던 때가 분명 올해초인데 벌써 이렇게 그림같은 풍경으로 완공되였다고, 우리가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보다 더 특색있는 수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획해온 사업이 드디여 빛나게 완성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을 락원군인민들에게 선물하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과 원료전처리장 등 생산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설비들의 부하시험과 기술적련동시험을 끝낸데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형태의 여러 단층, 소층살림집들을 찾으시여 설계를 해안가의 자연환경과 세련된 조화를 이룰수 있게 독특하게 하도록 당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공을 설계기술적요구에 만족되게 정말 질적으로 잘하였다고, 어촌문화주택지구의 모든

살림집이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들로 완공되였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락원포에 일떠선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을 절대적인 충실성과 헌신적투쟁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분발심의 산물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오늘 여기에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래일은 이를 릉가하는 더 훌륭한 기념비적실체들이 탄생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진척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락원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군의 경제적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전망계획을 협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내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싶다고, 이 계획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고장 인민들로부터 받자고 하시면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을 가까운 시일내에 뜻깊게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과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8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과 구축함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해군상장 박광섭동지가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최현》호의 해병들을 만나시고 훈련 및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신형구축함운용을 위하여 해병들이 도달하여야 할 군사기술적자질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훈련방식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각 무장계통들의 부분별시험과정과 통합운영체계구성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과 9월에 예견되여있는 사업들을 완결하고 계획대로 10월중으로 다음단계인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공정에로 넘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있는 세번째로 되는 《최현》급신형다목적구축함실태와 전망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선박공업분야의 기술자, 전문가들과 함께 중요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의 중요공간에서 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은 공화국무력의 발전적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팀수 없는 최중대국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강조하였지만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군사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부터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표명으로 된다고 락인하시면서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시위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도발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여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한번 도발적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멈춤없는 투쟁과 분투로써 우리 국권의 핵심을 지켜선 공화국해군의 지위와 활동에서 중대하고도 사변적인 변화를 련속적으로 가져올것이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핵무력구성과 핵사용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것이라고, 이는 우리의 해군전력이 국가방위전략수행과 전쟁억제력행사에 더욱 적합화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것뿐이라고 하시면서 정세관리와 국가방위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것이며 나라의 주권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행동으로써 표현될것이라고 단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군인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고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기지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조직된 저격수들과 특수작전부대 군인들을 만나시고 구분대들에서 장비한 무장장비실태와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들에 생산공급되고있는 신형저격수보총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우리 국방과학원이 무기의 인간공학적성능과 저격수의 전술적기동성을 높일수 있게 우리식으로 설계, 개발한 신형저격수보총의 먼거리고정밀저격특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우리 부대들이 이런 새세대저격무기를 가지게 된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들의 전투력구성에서 저격수력량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격수는 특별히 선발되고 독자적이며 주동적인 군사행동을 할수 있게 준비된 군인이며 전장에서 백발백중의 저격술로 적병을 필살하는 사냥군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특수작전력량과 전문화된 저격수력량을 대폭 강화하는것이 우리 무력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총참모부직속으로 중앙저격수양성소를 조직하는 문제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성이 올해부터 저격수구분대들에 공급할 위장복을 임무수행지대의 조건과 계절특성에 맞게 질적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특수작전무력을 전쟁수행의 중추적핵심력량으로, 최강의 전투집단으로 더욱 억척같이 무장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저격수구분대의 실탄사격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과시하는 전투원들의 훈련모습을 기쁨속에 보시면서 정말 사격을 잘한다고, 그 어떤 적들도 우리 군인들의 조준경안에 들기만 하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특수작전무력건설사상을 받들고 언제나 가슴속에 싸움마당을 안고 살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일심분투하고 있는 전투원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임의의 시각 그 어떤 전투임무가 부과되여도 오직 승리만을 떨칠 억척의 의지로 충만되여있는 믿음직한 근위병, 열혈맹장들에게 《놈들이 동무들을 보기만 해도 공포에 떨게 해야 하오!》라고 하시면서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먼거리고정밀저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뛰여난 사격술을 보여준 3명의 저격수들을 축하해주시면서 개별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도높은 실전훈련의 열풍속에서 필살의 저격술을 키워가고있는 저격수구분대의 군관, 병사들과 뜻깊은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시여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6년 12월

1948년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본사편집부는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의 발전과 더불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의 일부를 전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초기부터 내세우신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였을 때 우리 나라에는 일제가

2.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61년 10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룡성의 로동계급이 만든 6000t프레스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69년 4월

패망하면서 다 파괴해버린 락후한 경제와 빈 금고뿐이였다.

경제건설경험도 없었고 민족기술인재와 기능로동자도 부족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크고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에 의거하거나 그들의 경제를 모방이식하는 길로 나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실린 경제건설의 중대한 과제를 두고 두가지 원칙적문제를 내세우시였다.

그 하나는 자체의 경제토대가 없이 남의 원조에 의거해서는 언제가도 《빚진 종》의 신세를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는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우리 인민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고 결심한 이상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는 불가피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뚫고나갈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특히 미국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조건에서 자립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길만이 피로써 쟁취한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와 인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쎄브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집요한 책동속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시였고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당의 경제로선을 비방하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도 단호히 분쇄해버리시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뜨락또르, 자동차생산의 절박성과 나라의 사정을 알려주시면서 기계를 계속 남에게만 의존하여 사다쓸수도 없는 것만큼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보자고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호소에 고무된 우리의 로동계급은 단 한해사이에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를 비롯한 대형기계들을 만들어냈으며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평양종합방직공장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3년 5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창설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였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나라에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4년동안에 공업총생산액은 3. 5배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 이르러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였다.

그 이후 1970년-1979년사이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15. 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고 1980년대말에 가서는 공업의 모든 부문이 전례없이 높은 생산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가 그 어떤 고전의 명제로부터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에 기초하여 건설된것이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모방하여 건설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우리 식으로 건설된것이며 큰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여 건설된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과 지혜로 건설된 경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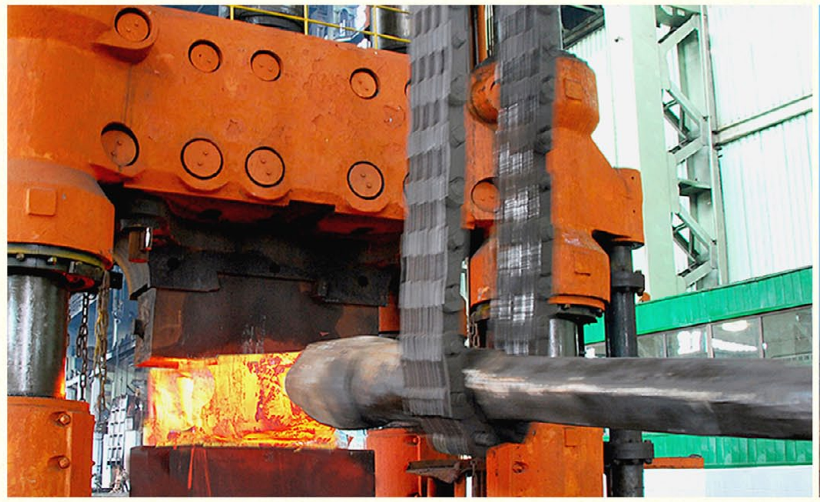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자립적민족경제는 오늘 우리 나라가 적대세력들의 극단한 경제봉쇄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글 박의철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새로 만든 내연기관차 《금성》호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5년 5월

5월10일공장에서 생산한 채탄기와 종합굴진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0년 7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86년 6월



조국해방 80돐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일군들이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아 렬사들의 묘비앞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온 나라 인민이 조국해방 80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전설적영웅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신 감격의 열광, 평양이 낳은 희세의 천출위인을 우러러 터친 40만의 우렁찬 환호성이 진감하던 80년전 그날의 크나큰 격정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개선문으로 향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 혜산혁명렬사릉 등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의 신념과 자생자결의 의지를 지니고 백두의 설한풍을 맞받아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며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킨 1세대 혁명가들의 숭고한 넋에 경의를 드리였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조국해방 80돐경축 미술전람회 진행

조국해방 8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진행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과 시위행진 진행

조국해방 8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기관차팀과 려명팀사이의 홰불컵 남자축구경기 진행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새로 개건된 빙상관 개관식 및 빙상휘거모범출연 진행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 8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조국해방 8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조국해방 8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조국해방 80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웅변모임, 조국해방 80돐 경축연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과 함께 무도회도 진행되였다.

사진 황정혁, 리진혁
글 김선경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은 《송도원》상표를 단 식료품과 함께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식료품생산기지이다.

강원도 원산시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력사는 10여년밖에 안되지만 중앙의 식료공장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생산으로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하고있다.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현재 10여종에 수백가지의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은 해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 공장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인민들이 즐겨 찾고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명제품을!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다종다양한 식료품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가고있는 이곳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취적인 일본새에 의하여 《송도원》식료품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박의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문화적전통과 천연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회의에서는 금강산이 문화적전통과 천연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명산중의 하나로 불리워온 금강산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풍치, 1만 2 000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려한 폭포와 담소, 호수, 청신한 대기와 수정같이 맑은 물, 계절특유의 색조 등 특이한 자연미와 다양한 생물상, 오랜 절과 절터, 돌조각을 비롯한 문화유산들, 금강산전설과 같은 비물질유산들은 명산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당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 천하절승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명산이 인류공동의 재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명성떨치게 되였다.

글 박경철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j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 korean-books.com.kp www.kass.org.kp www.mfa.gov.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friend.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www.dprknado.org.kp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5088037212